

증언 자를 보내신 하나님

본문: 요한복음 1:6-8, 15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 배운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 해 본다.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다.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독생자 예수님이 보여준 영광을 본 자다. 예수님의 영광이 레이저 광선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모든 마음의 질병을 불태우고 새로운 생명과 힘, 능력을 덧입고 큰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소경이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볼 수 없다. 그 영광을 볼 수 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알도록, 그리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 우리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능력 있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

I.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저자 요한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후 곧 증언 자 세레 요한을 소개 주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일찍이 이사야는 우리의 참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했다.

요한복음 1: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나 무지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아시고 증언자로서 인간을 보내신 것이다. 본문에서 **증언**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된다. 물론 증언자로서 천사를 보내 실 수 있었겠지만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들이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오늘 날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증언자를 보내신다. 세례요한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14~15)의 말씀과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전파할 수 없고 전파 한 사람 없이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성경 구절에서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가르친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개만 소개하고자 한다.

마태복음 28:19-20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나는 대학 1학년 때 대학 선배가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었다. 그후 나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도와 주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을 잃지 말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II 빛에 대하여 증언해야 한다.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빛 곧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보내셨다.

증인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의 진실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A witness is a person with some experience and knowledge that can help establish the truth of some fact that is in dispute.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33-34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오실 분에 대해 미리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 표적을 주셨다. 그때부터 요한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충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는 바른 증인으로의 삶 때문에 죽음까지 당하게 되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Robert Abercrombie 목사 안수 식에서 설교할 때 요 5:35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택했다.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에드워드는 복음에 대한 충실한 증인에게는 열정이 불타고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이 점에서 그는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명한 경험이 없이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진리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산다.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증거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열정이 넘치고 빛을 비취 주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행!8)

Ⅲ. 증언의 목적은 믿게 하는 것이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를 통해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세례요한의 증언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증언 함으로 자신을 들어내고자 하는데 있지 않았다. 8절에서 그는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세례요한의 전 생애는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의 진리와 그 가치를 들어내는 일에 집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10:41-42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 할 것인가?

1.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늘 배우고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이 자라가야 한다. 교회는 예

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모인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지 못하여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못해 영적인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된다. 그래서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떤 통계를 보니 전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20%쯤 된다는 기록을 본 기억이 있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가르치고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서 성도들의 신앙이 무력 무력 자라도록 돕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 일은 특히 한국교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2.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마태복음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은 말로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해 봐도 전혀 이해 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 주면 그들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세상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멀어져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고 그리스도인들 개인 개인의 책임이다. 여러분을 아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렇게 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진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자. 아멘